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8월16일)

1. 자살이 급증하는 북한 내부 상황과 우리의 영적 전쟁



<미주 연구원의 보고 중에서 발췌>

최근 북한에서는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주민은 물론 군 장병과 간부들까지 자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40% 정도 증가하였으며, 김정은은 자살방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것은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굶어죽는 문제보다 자살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교양사업을 강화해 정치적 사고(자살)를 막으라” 라고 지시하였다.

살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스스로 죽는 자살과, 남을 죽이는 타살이 있다. 이 두가지 살인 모두 북한 땅에 창궐하고 있다. 정적 살인도 정권이 자행하는 것이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주민자살의 원인도 정권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두가지 살인의 근본원인은 북한 정권집단에 있고 그 배후에는 북한을 뒤덮고 있는 악한 영적세력이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이 일 앞에서 우리의 기부와 기술과 요령과 솜씨와 축적된 세속적 경험과 실력으로는 그 어떤 해결의 묘수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주신 말씀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이다.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시편 94:23)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

1) 사악한 통치술과 악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자살로 내모는 김씨 세습정권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의해 징계받아 완전히 무력화될 지어다!

2) 북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권이 들어섬으로 주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게 하옵시고, 숨겨진 북한 교회의 선한 목자들이 지하에서 올라와 지상에 등장함으로 주민들 모두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2. 전쟁 준비 더 공세적으로, 무장 장비는 대량 생산



지난 9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은 “전쟁 준비를 더욱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중요 군사행동 지침을 군에 내리고, 새 총참모장으로 리영길 차수를 임명했다. 또한 군수 공장의 임무를 강조하며 “군의 작전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장비들의 대량 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를 후에는 전술미사일 생산공장과 전술미사일 발사대차 생산공장, 전투장갑차 생산공장, 대구경 조종방사포탄 생산공장 등을 현지지도하는 행보를 보였다. 전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파하여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들은 지식이 없으므로 나무 우상을 지니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계속해서 비는구나...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구원자라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땅의 모든 끝돌아 너희는 나에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사야 45장 20~22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광복 75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북한은 한국을 무력으로 공산화할 목적으로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무력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사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알게 하옵소서. 칼과 전쟁의 우상은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는 북한이 되게 하옵소서.

3. 새벽에 성경 읽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 갑니다



“중국에 돈 벌러 나왔다가 선교사님을 만나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간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새벽 두 시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다섯 시면 또 일어나서 북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자매들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들과 연결이 되어 통화하던 중에 제가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었더니 ‘달구지를 끌고 다니며 하루 한 끼 버는데 우리는 이렇게라도 살아 갑니다. 남의 눈치를 봐 가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따뜻해 집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당당함에 안쓰럽고 불쌍하게만 그들을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본회 사역자의 고백이다. 믿음을 지키는 북한 성도를 위해 성경을 보내고, 기도하는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로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돌아다녔다 이 사람들이 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 증은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떠나서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38-40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에 하신 말씀으로 북한에서 숨죽여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하루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는 형편임에도 어려운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음이 전부가 되는 복 받은 북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도록 긍휼을 더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보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4. 태풍 피해 최소화 투쟁 위해 총궐기



북한 관영 매체는 북상하는 태풍 '카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할 것을 주문했다. 카눈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인 서해안 쪽보다는 동해안 쪽을 가깝게 지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옥수수 수확을 앞두고 있고 벼도 열매를 맺기 직전인 시기여서 다른 때보다 농업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어렵지만 복구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태풍 카눈을 통해 북한 주민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며 눈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내리라 하고 소나기와 가랑비에게도 것처럼 말씀하시니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멈추며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그가 징계를 위하여 또는 땅을 위하여 또는 긍휼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욥기 37장 5~7절, 13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사랑과 공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은 한낱 유한하고 나약할 뿐이며,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분이심을 떠올립니다. 태풍 카눈이라는 위기 속에서 북한 주민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두려움이나 슬픔을 넘어 평안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인명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5. 탈북 봉쇄 위해 강 바닥 깊게 파라는 국가보위성



최근 국경 지역 경비 근무를 담당하는 국경경비대에 ‘탈북 차단을 위해 강을 더 깊게 파라’는 국가보위성의 지시문이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위성은 ‘국경을 지키는 것이 전쟁보다 어렵다’면서 ‘장벽을 만들고 전기까지 놓으며 국경을 지키는데도 반역자들이 있으니, 강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 아예 강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아울러 강폭이 좁아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곳에는 초소를 300m당 하나씩 더 증강 설치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고 한다. 억압과 통제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육적 영적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갈힌 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오라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모습을 드러내라 하려 함이다 그들이 길가에서 짐승들을 먹이고 황폐한 언덕들이 다 그들의 목초지가 되며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바람이나 해가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고 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9~10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감옥과 같은 북한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제와 감시, 억압과 착취, 처벌과 핍박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이 들려 영혼을 흡족케 할 샘 근원으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6. 디지털 친화적인 북한 신세대



“부모 세대는 전화를 통화용이나 음악 듣는 것 외에 달리 쓰지 않지만 새세대들은 손전화로 못 하는 일이 없고 펄펄 난다. 또한 부모 세대 여성들은 당원, 군사복무, 대학, 집 등으로 남성을 판단했는데 요즘 세대들은 어떤 손전화를 써봤는지, 그걸로 뭘 해봤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북한 신세대들이 모바일 기기로 문화생활을 누리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이성을 선택할 때도 디지털 친화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데일리NK가 설명했다. 북한 청년들이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여, 말씀에 약속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당신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당신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희락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11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휩쓸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쉬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반응하여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깊고 풍성한 기쁨을 누림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